

하
스

이

스
π

한특협에 바란다(1)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 바라는 마음

대한산업보건협회 윤임중

지난 20년 가까이 협의회로서 지속되어 오던 특수건강진단의료기관의 모임이 사단법인체인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로 설립된 것을 크게 축하하고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의 전신인 특수건강진단기관협의회는 1983년에 설립되었고 당시 회원기관은 17개 의료기관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85개 기관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특수건강진단 기술개발과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전에 비하여 이제 회원기관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만족스러워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수건강진단협회의 설립이 왜 필요했으며 회원기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협회의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특수건강진단협회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함으

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곧 기업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분야, 예를 들면 산업의학, 산업간호, 그리고 산업위생분야는 각광받는 분야도 아니며 이름하여 인기있는 과목도 아닙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칫 근로자와 기업 또는 당국으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속된 기관에서조차 후대보다는 냉대에 가까운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산업보건에 종사하시는 동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라는 것 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주위환경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을 우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상품처럼 외국에서 수입하여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롭고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기업이 있고 근로자가 있는 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 산업보건이 아닐까요? 산업보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산업보건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보건은 근로자만을 또는 기업만을 아니면 관계 당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기업 그리고 관계 당국과의 사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한 소신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소신이란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외부의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가짐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소신있는 판단, 우리들이 가야할 길입니다. 산업의학이나 산업간호 그리고 산업위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 시킨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 할지

라도 그 생각이나 판단이 근로자에게만 기울어진다면 이는 근로자를 위한 판단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있는 판단,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당국의 신뢰를 받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협회의 회원기관은 서로가 적대적 관계가 결코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할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고 도울 때 그도 나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지만 내가 그를 헐뜯고 해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는 나를 도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보건에 종사하시는 동료여러분!

소신있는 판단.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지극히 가까운 동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마음가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데 더욱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기원합니다. 